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주를 사모하는 영혼 성경: 시편 143편

Tag:

1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4 그러므로 내 심령(spirit)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침담하니이다

5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셀라)

7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spirit)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이다

8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9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0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spirit)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1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시143:1-12)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몰아가는 자이다.

자신의 영혼을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몰아가는 자가 있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몰아가는 자가 있다.

많은 영혼이 자신을 군중 속으로 몰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 그것이 쉽고 정당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군중 심리에 굴복한다. 마치 생존 본능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안식을 누리지는 못한다.

특히 우리는 자주 마귀가 군중심리를 악용하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 마귀는 간단한 논리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사람들을 군중 속으로 몰아간다. 마치 상어가 정어리를 떼를 지어 몰려다니도록 몰아가듯이. 그렇게 해 놓고 상어는 쉽게 정어리 사냥에 나선다.

마찬가지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피해야지 군중 속으로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군중심리는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위기를 넘기는 자가 되었다.

단어공부;

오늘 시편 143편에는 영혼(soul)과 영(spirit)이라는 단어가 총 8번 등장함.

영spirit 루아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영. 4,7,10절. 구약 성경전체 377회 사용됨.

영혼 soul 네페쉬; 사람의 영혼. 3,6,8,11,12절. 구약 성경전체 754회 사용됨. (spirit에 비해 정확히 두배?! ; DBD;성경참조사전;가장 권위 있는 책. Brown-Driver-Briggs or BDB;standard reference for Biblical Hebrew and Aramaic)

그런데 특이하게 시편143편에는 영과 영혼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동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12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수 가운데 무려 8회나 등장했다.

‘영혼’은 흔히 자기 자신의 자아를 뜻한다. 영혼의 기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자기의 의지를 수행하는 기능이다. (물론 영혼은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으며, 희노애락을 느끼기도 하고, 판단도 한다.) 영혼은 특히 사람의 몸과 비교할 때 몸을 제외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항상 짝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쏘울 메이트라 한다. (사회적 존재라는 표현도 사용됨)

그러나 영혼에게 짝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그의 근원적, 태생적 원인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에는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음) 그래서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soul)에는 하나님의 영(spirit)이 부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영(spirit)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영을 받으면 우리 몸이 뜨겁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각이나 의지가 생기기도 하는 등,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은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쫓겨서 요단 동편으로 피난가서 바르실래의 도움을 받고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다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지은 시로 짐작되어진다.

1...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란군과 대치하고 있다. 아들이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다. 아들은 악한 신하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들은 철부지라는 생각이 강하다.(물론 성경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아버지로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

압살롬에게는 열정도 있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컸다. 어찌 보면 가장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아들이기도 했다. 다윗도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 어찌 보면 밋세바와의 언약만 없었다면 그가 후계자가 되었을 것이다. 장남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대놓고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서운한 감정이 더 컸다. 그래서 주변의 사악한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 (아마 그는 아버지가 사악한 밋세바에게 불모처럼 잡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윗으로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자신의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나름대로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하고 온건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처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이런식으로 반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뀐다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이다.

2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 말은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심히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표현이다.

직역하면 '심판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이다. 압살롬이나 나나 모두 죄가 많습니다.

3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덮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런데 저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저 원수는 내 생명을 땅에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수치를 당하였고, 나의 가족은 능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본문 참조. -말로 옮기기가 심히 고통스러운 만행을 원수들이 다윗의 집안에 행함.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반역을 돌이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른 악마적인 만행이며, 압살롬이 그 마귀의 농단에 놀아남.)

... 내 생명을 땅에 덮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자신이 죽고 대신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정도의 모욕을 당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만행을 통해서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치욕스러운 왕의 모습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이다. 이 원수들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하고 있다고 간파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려는 사악한 무리들이고, 주의 성전까지도 허물 자들이라고 간파하였다.

4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심령(spirit)이 상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이 상하거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상한 것에서 지나쳐 하나님 앞에서의 영이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다. 즉 거룩성에 상처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귀짓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5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일들을 추억해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행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여정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제 이 나라가 저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영혼은 주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다. 나의 일신의 안일함을 도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결코 저버릴 수 없다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의 부르짖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법도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허물려고 하고, 더럽히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6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셀라)

마른 땅(비를 갈망하는 땅) 같은 나의 영혼 (성령의 비를 갈망하는

영혼) 갈기 갈기 찢긴 다윗의 영혼, 아들을 죽일수도 없고, 저 원수들을 살려 둘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해야 합니까? 내가 대신 죽고, 아들은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소원이었다.)

8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인자한 말씀(위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의 영혼
내가 주를 의뢰함; 오직 나의 영혼은 주님께 가까이 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악한 자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지만, 오직 주만 의뢰함.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 길이 내 보기에는 위험해 보여도 주님께 내 생명을 맡깁니다. 주가 하시라는 대로 하겠사오니 나를 인도 하소서.

11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환란도 결국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한 책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개가를 부르는 것 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기를 바랬다. 오직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길 원했다. 왜냐면 하나님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분이기 때문이다.

이미 다윗은 원수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다.
그러나 다윗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원수들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다윗은 오직 여기에 자신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주의 뜻을 위해 살기 원하나이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12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 주시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아멘.

3.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굴로 만들어버리다. 잘게 부수다.
4절 속에서 상하며;쇠약해지다. 압도 당하다. 졸도할 정도로 참담하나이다;소스라치게 놀라다. 마비를 일으키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로마서 13장 1-7절;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16-17
'정사, 권세, 백성/세속 사회의 신화'